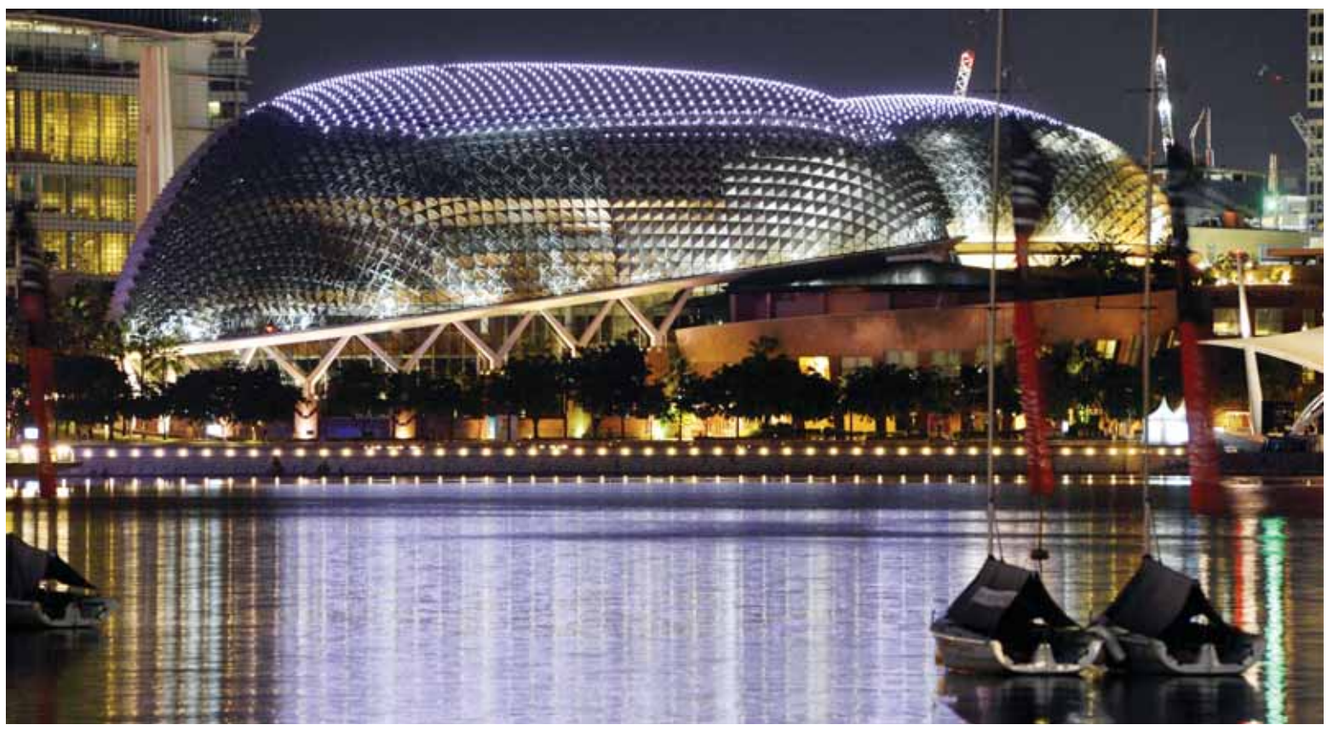
진실이 오른다 -밀레
MILLET 아웃도어의 진심-밀레

光州日報

우암학원 창학63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남부대학교 | 전남과학대학교
062)970-0114 061)360-5050

'성접대 의혹' 연루 인사 우후죽순 ▶2 | 지병문 총장 추천 병원장 알고 보니 ▶6 | 엄홍길과 함께 하는 한국 명산-해남 두륜산 ▶11 | 시범경기 1위 이끈 KIA의 '네가지' ▶14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 222-8111 kwangju.co.kr 제19450호 1판 2013년 3월 25일 월요일 (음력 2월 14일)



싱가포르가 '르네상스 시티 프로젝트'(Renaissance City Project) 사업의 하나로 건립한 복합문화공간 에스플러네이드의 야경. 이 프로젝트는 유럽의 문예부흥을 싱가포르에서 재현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문화인프라 확충 사업이다. /싱가포르=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홍-싱-광, 亞문화전쟁 불 붙었다

〈홍콩〉 〈싱가포르〉 〈광주〉

홍콩=박진현문화선임기자
싱가포르=윤영기기자

HONG KONG
SINGA PORE
GWANG JU

미술관·공연장 등 17개 인프라 40ha '서구룡 문화지구' 조성중

갤러리·박물관·도서관 등 건립 '르네상스 시티' 도시 리모델링

2015년 12만㎡ 문화전당 개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프로젝트

오는 2015년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의 개관과 더불어 아시아에서는 사상 유례없는 문화전쟁이 시작된다. 홍콩과 싱가포르, 그리고 광주가 '아시아의 문화지존'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것이다.

이른바 '홍·싱·광 문화대전'(文化大戰)으로,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맞아 각 도시의 이미지 제고와 고부가 창출을 내건 꿈의 프로젝트다.

〈관련기사 3면〉

광주일보사는 홍콩·싱가포르의 대규모 문화프로젝트를 현지 취재해 25일 11년만에 복간한 '예향' 4월호의 커버스토리로 다뤘다. 이들 도시의 역동적인 문화현장은 관광과 교통·쇼핑 인프라 등에서 열세인 광주에게 도전과 과제를 동시에 던져주고 있다.

지난 1998년 홍콩은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아시아의 문화허브'를 내걸고 '서구룡 문화지구'(West Kowloon Cultural District·이하 WKCD)라는 야심작을 추켜들었다. 홍콩의 야심을 말해주듯 부지가 40ha(12만평), 공사비만 3조원(216억 홍콩달러)에 이른다. 규모로 치자면 2013년 3월 현재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화프로젝트 가운데 가장 화려하고 웅장하다.

홍콩의 명품인 빅토리아 항구를 바라 보고 있는 이 복합문화예술단지에는 오는 2015년부터 2031년까지 3단계에 걸쳐 '아시아의 뉴욕현대미술관'을 표방한 M+미술관과 다목적 전시장(1만5000석), 클래식 전용홀, 시추오페라극장 등 17개의 문화인프라와 부대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무엇보다 지난 2011년 국제설계 공모로 당선된 영국 건축회사 포스터+파트너스의 '도시안의 공원'(City Park)컨셉은 위협적이다. WKCD 인근의 19ha(5만7475평)을 5000그루의 수목과 각종 꽃들을 심는 다는 홍콩의 야심은 국제 건축계의 핫 이슈가 됐다.

특히 WKCD 위원회의 수장으로 마이클 린치(Michael Lynch·전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대표)를, M+미술관의 총디렉터로 라스 니티브(Lars Nittive·영국 테이트모던 미술관 초대관장)를, 세계적인 프로듀서 루이스 유(Louis Yu)를 공연예술감독으로 잇따라 영입해 화제를 뿌렸다. 이들 스타군단이 빚어낼 콘텐츠의 파워가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2면에 계속〉

'예향' 복간호 오늘 발간

반갑다, 예향 ▶12면

자세한 내용은 '예향' 4월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방통위원장 이경재…장·차관급 9명 인사

김병관 내정자 사퇴, 김관진 국방장관 유임

이경재

김관진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장관급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이경재 전 새누리당 의원(경기 강화)을, 기획재정부 1차관에 추경호(대구) 금융위 부위원장을, 2차관에 이석준(부산) 기재부 예산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관련기사 3면〉

또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에는 이상목(충북)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사무총장이, 2차관에는 윤종록(강진) 연세대 미래융합연구소 교수가, 국방부 차관에는 백승주(경북)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이, 해수부 차관에는 손재학(부산) 국립수산과학원장이,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에 고영선(서울)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본부장이, 금융위 부위원장에 정찬우(서울) 금융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임명됐다.

청와대 윤창중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장·차관급 인선에 대해 "이번 인선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또한 전문성과 업무추진력을 고려했음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이날 차관 7명을 임명하면서 총 27명의 차관 가운데 성접대 스캔들에 휘말린 김학의 법무차관의 사퇴로 공석이 된 법무차관을 제외하고 26명에 대한 인선을 마쳤다.

이날 인선된 7명의 차관 중 절반이 넘는 4명이 영남 출신이어서 26명 가운데 10명이 영남 출신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서울·경기 6명, 호남 4명 순이었다. 따라서 영남 우대와 호남 홀대 인사 논란이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6명 중 21명이 고시 출신이며 대통령직 인수위 출신이 4명 포함됐다.

친박(친박근혜)계인 이 방통위 내정자는 18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위원을 지내는 동안 여야 격돌을 부른 미디어법 처리과정에서 박 대통령에게 조언했던 인사다.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다.

이날 임명된 차관 중 유일한 호남 출신인 윤 미창부 2차관은 광주고와 항공대 항공통신공학과 출신으로 대통령직인수위 교육과학분과 전문위원을 지냈다.

이에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22일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가 사퇴하자 김관진 현 장관을 유임시키고 현오석 기획재정부장관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신제윤 금융위원장에게 임명장을 각각 수여했다.

김병관 내정자는 지난 22일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서 그동안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자진사퇴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17부3처17청…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

정부 부처가 23일 0시를 기해 '15부2처18청'에서 '17부3처17청'으로 확대·개편됐다.

정부는 지난 22일 오후 8시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안은 경제분야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경제부총리제를 5년 만에 부활시켰고,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를 각각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넘겨받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됐고, 행정안전부는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處)로 승격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외교통상부는 외교부로,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부로, 국토해양부는 국토교통부로 각각 개편됐다. .

여야 합의에 따라 지상파 방송의 허가 및 재허가 권한을 현행대로 방송통신위에 존치시키고, 미래부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 뉴미디어 사업의 허가, 재허가, 변경허가, 관련 법령의 제·개정 시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에 앞서, 국회는 지난 22일 오후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를 신설해 정부 부처를 '15부2처18청'에서 '17부3처17청'으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해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한 법률안 40개를 일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12명 가운데 찬성 188명, 반대 11명, 기권 13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신성자동차㈜ www.gjbenz.com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2013년식 The E-Class
36개월 무이자+평생 소모품 무상서비스
062)226-0001
Mercedes-Benz

학교설립 59주년 (1954~2013)
59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각화동 휴먼파크서희스타힐스!
광주시민들의 폭발적인 성원과 사랑으로
지역주택조합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새로운 신화 창조로 시공에서 준공까지-
전국의 지역주택조합 가운데 가장빠른 사업일정과
좋은집 짓기가 시작 됩니다
휴먼파크 서희스타힐스 HUMANPARK STARHILLS
각화동 휴먼파크

[총 1,032(예정)세대 프리미엄 대단지 76㎡ / 84㎡] HUMANPARK STARHILLS 휴먼파크 서희스타힐스 | 문의전화 266-9888
시행 가칭 각화동휴먼파크서희스타힐스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
시공 (주)서희건설(예정) | 자금관리 국제신탁(주) 시행대행사 (주)휴먼시티